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주 · 오현경 · 민현주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한국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주\* · 오현경\*\* · 민현주\*\*\*

### 초 록

본 논문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2015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것이다.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1)차별경험이 있는 이민자가 한국생활만족도가 낮을 것인지, (2)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것인지 (3)성별, 국가별로 그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읍면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세 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낮아졌다. 중국결혼이민자는 기타 국가에 비해 세 가지 만족도 모두 낮았으며, 필리핀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의 만남경로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한국어 능력은 듣기가 잘 될수록 모든 만족도가 높았다.

남성결혼이민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다르게 차별경험이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 교육수준, 체류기간, 배우자와의 만남경로는 모두 만족도와 무관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민자, 사회적 차별경험, 한국생활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2015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자료

\* 제1저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jcho@kwidmail.re.kr)

\*\* 제2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sundaymorningok@hanmail.net)

\*\*\*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조교수 (newrules@kyonggi.ac.kr)

## I. 서론

우리나라 이민자 중 한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sup>1)</sup>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24만 명에 이르고, 여성이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한국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민자들이 대다수(85.4%)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민자들도 상당수(14.6%) 거주하고 있다(강동관 등, 2014).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 낙인, 사회적 배제 등에 노출되어 있다(이태정, 2005; 최혜지 외, 2012).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를 포함하여 이민자에 대한 인종, 종족 차별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강희원, 2006). 2014년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이주민 실태를 조사한 뒤, 한국 사회에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통계 수집 등을 통해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이나 배제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연합뉴스, 2014).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차별<sup>2)</sup>이라는 용어는 강한 부정적인 어의를 띠고 있다. 이러한 차별의 부정적 의미는 사회구조나 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 아니라, 시대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좌우된다(차종천,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차별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sup>3)</sup>이라 하겠다.

특히 결혼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계층화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김유균 외, 2015). 첫째,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1)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다. 2009년 이전 : F-2-1 및 F-1-3(국민의 배우자), 2010년 이후는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2011.12.15.신설)이다.

2) 차별은 무엇보다도 사회 불평등 현상의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것이 계층의 주관적·평가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행위의 측면까지 포함하며, 집단 간 격리와 갈등을 시사하는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안의 성격이 복잡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접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지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계적인 학문적 고찰은 물론 문제제기 자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차종천, 2004).

3) 사회적 차별은 불평등을 기반으로 어떤 특정한 사회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시대나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회관계의 형태를 변화시킴에 따라 없어질 수 있다(<http://www.arsvi.com>.)

노동자 다음으로 한국 내 이민자 집단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2015년 현재 전체 이민자 가운데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약 15%에 달한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단기간 동안 체류하는 반면, 결혼이민자는 자국민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로부터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 관리되어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김정선, 2013), 사회적으로도 자국민과 다른 사람(Other)로 인식되어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Kim, 2013).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은 향후 한국사회의 인종, 종족 계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셋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인종, 종족 계층화의 재생산을 야기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2014년 현재 약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강동관, 2014). 현재 이들 중 6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약 60%에 달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지속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따른 불평등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차별은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기회(취업, 교육 등)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자존감, 생활만족과 같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Krieger, 1999; Williams & Mohammed, 2009).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민자 집단 내 성별 혹은 인종, 종족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결혼이민자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학문적 고찰은 물론 문제제기를 위한 여건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차별의 구조적 차원을 강조하는 연구는 한국인의 이주민 차별이 집단 간 우월성, 열등성에 대한 인종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하상복, 2012; Kim, 2013). 이에 한국인의 차별화된 인종, 종족 관념과 성차별적 관념은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유균 외(2015)에 따르면, 비서구권 출신 혹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서구권 혹은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보다 심각한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Massey and Redston, 2006). 리차드슨(Richardson, 1967)에 따르면 이민자가 인지하는 만족감이 수용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수용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차별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생활만족과 같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실제로 그 동안의 연구들은 질적 연구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로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므로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며,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차별경험이 한국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2015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만족도는 한국생활 전반의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이다. 먼저 차별경험이 있는 이민자가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을 것인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차별경험이 있는 이민자가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것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민자의 성별로 출신 국가별로 그 결과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독립변수로 이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차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차별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동학(dynamics)의 측면에서 다루어 왔다. 막스 베버(2008)에 따르면, 지배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자원과 기회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차별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은 집단 혹은 개인이 그의 소속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말한다(Krieger, 2014).

한국의 결혼이민자 집단이 겪는 차별의 원인은 기존 연구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관점은 차별에 대해 각기 다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이 사회적 평가에 기초한 불평등 현상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하겠다(차종천, 2004).

먼저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은 두 집단 간의 언어, 생활방식, 관습, 혹은 규범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화적 관점(cultural perspective)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관점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겪는 차별경험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도,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지역사회의 인구구성 혹은 도시화 정도(김한성 외, 2013)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다르며, 이로 인해 이주민의 차별경험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여러 연구들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 정도가 차별경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문화적응의 척도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거주기간(조인주 외, 2012; Kim, 2014)등을 이용하여 문화적응의 정도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감소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적, 사회적 제도, 인종주의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구조적 관점(structural perspective)이 있다. 구조적 관점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한국의 이주민들은 한국인이 누리는 시민권<sup>4)</sup>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김석준 외, 2015)

주류 미디어에 의해 한국인과 다른 사회적 타자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Kim, 2012). 즉, 문화적응의 정도와 관계없이 이주민들은 한국인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구조적 관점에 기반한 선행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을 사회적 타자로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정선, 2011; Kim, 2013). Kim(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를 한국인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재생산해야 할 모성적 시민(maternal citizen)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한국화되어야 할 종족화된 타자(ethnicized other)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구조적 관점은 한국사회의 인종, 종족 계층화 과정 및 사회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차별 양상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할 수 있다. 이민자의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 경험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자녀 세대가 차별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세대 간 전이 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Harrell, 2000). 또한 이러한 경향은 부모(특히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유대가 돈독한 동양 유교권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Benner-Kim, 2010). 우리나라에서도 이민 문화의 도입이 장기화되면서 정책적 요구가 자녀 세대로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의 구조적 관점을 지닌 연구들에 따르면 이민자가 사회적 타자로 여겨지는 차별 뿐 아니라 이민자 집단 내의 인종, 종족별 차별화 및 성별 차별화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인종, 종족에 따라 한국인의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서구권 출신 이주민

4) 여기서 의미하는 시민권은 한국의 이민자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통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들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확장시키기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 복지서비스 정책으로 변질된 경향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이 이들에게 보편적인 사회권을 확장시키기보다 임의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법에 명시된 권리라기보다는 행정 프로그램적 성격을 띠기에 현재의 다문화 유행이 사그라지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것이다(김석준 외, 2015; 김정선, 2011).



에 대해 한국인은 보다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아시아권 혹은 그 외 비서구권 지역 출신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타적 태도를 지닐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Kim, 2014; 하상복, 2012).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민족이지만 비서구권 출신의 한국계 중국인은 서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eol & Seo, 2014). 이러한 경험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이주민 차별이 일정 정도 인종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의 구조적 관점을 지닌 연구들에 따르면 이민자가 사회적 타자로 여겨지는 차별 뿐 아니라 이민자 집단 내의 인종, 종족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성별 차별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ollins(1990)는 성(gender), 계급, 인종과 같은 불평등 구조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어, 인종적 소수자인 이민자들 중 여성이민자들은 인종 불평등뿐만 아니라 정착국의 남녀불평등에 의해 이중적으로 고통 받는 존재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이민자의 남녀 간 차별경험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로서 Kim(2013)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인종, 종족적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Gee et al.(2006)는 차별경험의 인종, 종족별 남녀별 차이가 차별 경험의 건강 영향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프리카계, 멕시코계, 다른 남아메리카계 미국인들의 차별경험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결과 멕시코계나 다른 남아메리카계 미국인에 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서 차별경험과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Hahm et al(2010)은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차별의 역치가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이주민 중 보다 빈번하고 심각한 차별에 노출되는 집단에서 차별경험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민자들은 수용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이는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차별의 경험이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Bobo and Fox, 2003; Thomas and Holmes, 1992; Safi, 2010).

## 2.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삶의 질은 소득수준, 주거환경, 의료보건 서비스이용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조작화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주관적인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삶의 질을 뜻하며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는 이러한 주관적 해석의 일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Valois et al., 2004).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안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음주와 같은 건강행동(Levy et al., 1980), 개인의 건강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Koivumaa-Honkanen et al., 2000), 자살의도 및 자살행위(Valois et al., 2004)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구성원, 특히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김지영 외, 2010; 박서영 외, 2007; 송신영 외, 200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한 개인의 복지를 넘어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과 패러다임은 다양하다. 그 중 욕구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사람들은 삶에 만족한다고 가정한다(Diener et al., 2000). Veenhoven et al.(1995)는 개인의 삶의 만족은 소득, 건강, 자유, 교육 등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성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제도적 지원이 개인의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됨을 뜻한다. 그러나 욕구이론에서 설명하듯이 기본적 욕구의 충족만이 개인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적 기준이론은 개인의 삶의 만족은 현재 처한 상황과 다른 상황들을 비교함으로써 인지하는 주관적 평가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사회적 상황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다른 상황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석되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더 어려운 상황과 비교하는 하향적 비교인지, 아니면

더 나은 상황과 비교하는 상향적 비교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Campbell et al., 1976). 또한, 특정한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Parducci, 1995).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 기준이론은 개인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소득,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이주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출신국에서 경험하였던 삶과 비교한 현재의 삶, 이민 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 경험 등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둘러싼 특수한 사회적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Ⅲ.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자료를 사용하였다(조순주 외, 2017).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6). 2015년 조사는 세 번째 조사이며, 통계청을 통해 일반에게 원자료가 공개된 것은 2015년 자료가 처음이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접근성 및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5) 2012년 실태조사 원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gsis.kwdi.re.kr/gsis/kr/contents/ContentsList.htm>)에 신청(유료)하여 받을 수 있다.

조사 표본은 전국의 다문화가족 17,849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7,109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총 15,540명, 만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6,079명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16,870명의 자료를 추출하고, 여성결혼이민자 14,332명, 남성결혼이민자 2,538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 구성표에는 가구구성원, 가구특성의 항목이 있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에는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이 있고, 배우자 조사표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와 항목이 유사하나 자녀양육 및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내용이 2012년과 달리 추가 조사되었다. 만9~24세 자녀는 가정생활, 성장배경과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 2. 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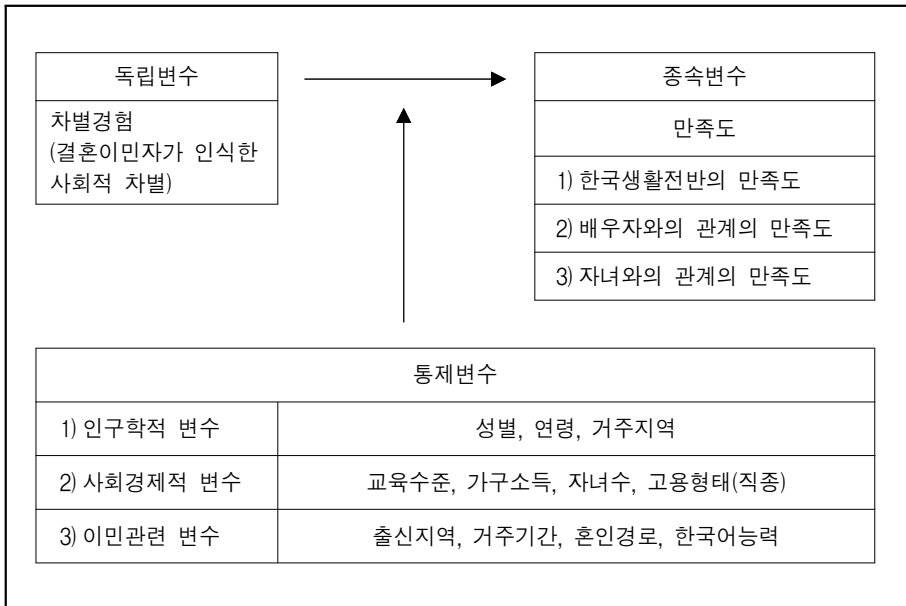
상기의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할 때,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가 이를 경험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이 있는 이민자가 한국생활만족도가 낮을 것인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이 상당히 다양하다. 이민자들은 자국 내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국가와 이주형태를 결정한다. 아시아 국가들 성원 중에서 고액의 이주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계층은 동아시아로 그렇지 못한 계층은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거나 상대적은 이주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이웃 국가나 중동으로 이주를 한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이주의 계층화가 보여진다.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이주 경로 중의 하나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이주비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불할 수 있는 계층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고, 이러한 이주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일단의 여성들은 물리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결혼이라는 경로를 통해

자국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인간적인 희망을 품고 이주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김민정, 2006) 국가별 성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성별, 국가별로 그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차별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 (2) 차별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 (3) 국가별로 성별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TATA ver. 14.0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P-value가 0.01, 0.05, 0.1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다음은 변수의 설명이다.

피설명변수는 만족도이다.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할 수 있다.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Amit, 2010; Massey and Redston, 2006). Richardson(1967)은 이주자가 인지하는 만족감이 수용사회에서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수용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sup>6)</sup> 원자료에서 제시되는 만족도는 3가지인데,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이다. 해당 조사의 통계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2015.12)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로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 지위나 생활 만족도가 다른 특성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심층적 통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만족도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가족생활만족도로 문화적 차이 및 개방성 정도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부부 교육 프로그램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만족도이다. 결혼이민은 이민자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한국의 사회, 문화적 구조와 환경의 영향 하에 삶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도 및 생활만족도는 결혼이민자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간주할 수 있다(이창식, 2010).

먼저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는 1에서부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5로 5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당 척도를 역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는 1에서부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5로 5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자료

6)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연결망과 같은 사회자본 요인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와 같은 사회 경험적 요인들이 있다고 제시하였다(김한성 외, 2013).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당 척도를 역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귀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1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는 5로 5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당 척도를 역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차별경험이다.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었다’는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이민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이다. 남성인 경우 1, 연령은 연속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가구의 거주지역이 동부(도시)이면 1의 값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거주 지역은 노동 수요적 측면인 노동시장환경 관련 요인이기 때문이다(채구목, 2007; 조선주 외, 2017).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교육수준(학력), 가구소득, 자녀수, 고용형태(직종)이다. 학력은 교육연수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출신국에서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반면,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선진국일 경우는 더욱 이민국에서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결혼이민자 개인의 소득은 제외한 순가구소득으로서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간의 중간 값으로 바꾸어 구성하였다. 자녀수는 18세 이하의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로 연속변수이다. 고용형태는 직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관리 및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해당 직종일 경우 1의 값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민관련변수로는 출신지역, 거주기간, 배우자와의 만남경로, 한국어능력이다. 출신지역은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대만·홍콩, 베트남, 필리핀과

그외 국가로 구분하였다. 조사표는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대만·홍콩, 베트남, 필리핀, 그 외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미주·유럽·대양주, 기타 국가로 11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상기 6개 범주가 65.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6개 국가와 그 외 국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거주기간은 2015년에서 입국연도를 뺀 기간으로 연속변수이다. 배우자와의 만남경로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났을 경우 1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민자의 경우 결혼경로에 따라서도 이혼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결혼경로는 다문화가족 구성 및 해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재규, 2011).<sup>7)</sup>

한국어능력은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1’의 ‘매우 잘한다’에서 부터 ‘5’의 ‘전혀 못한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해당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을 때부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hiswick and Miller, 2007; Shields and Wheatley-Price, 2002)

분석변수의 기술통계 값은 <표 1>과 같다.

7) 박재규(2011)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배우자 외도나 폭력과 학대, 그리고 가족갈등으로 이혼한 사람이 많은 반면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종교기관 소개 및 기타 이유로 결혼한 여성이민자 중에는 남편의 외도 및 정신장애로 이혼한 여성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단 위	여 성		남 성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차별경험		있다=1	0.39	0.489	0.44	0.497	
만족도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1:매우불만족 ~ 5:매우만족	3.695	.977	3.767	1.013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3.932	.965	4.268	.872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4.443	.762	4.309	.805		
인구 학적 변수	성 별	남성=1	0.00	0.000	1.00	0.000	
	연 령	세	37.51	10.889	45.21	12.120	
	거주지역	동부(도시) =1	0.64	0.480	0.86	0.349	
사회 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연수	11.82	3.133	13.46	3.332	
	가구순소득		순가구소득의 로그값	4.92	1.358	3.70	1.927
	자녀수		명	1.62	0.729	1.51	0.680
	직종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해당직종=1	0.16	0.364	0.41	0.492
		서비스 종사자	해당직종=1	0.19	0.393	0.09	0.292
		판매종사자	해당직종=1	0.07	0.262	0.05	0.228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해당직종=1	0.21	0.406	0.28	0.451
		단순노무 종사자	해당직종=1	0.31	0.464	0.15	0.361
	이민 관련 변수	출신국가	중국	해당국가=1	0.23	0.42	0.14
중국(한국계)			해당국가=1	0.14	0.34	0.24	0.42
일본			해당국가=1	0.10	0.29	0.04	0.18
대만, 홍콩			해당국가=1	0.02	0.13	0.10	0.30
베트남			해당국가=1	0.19	0.39	0.01	0.07
필리핀			해당국가=1	0.10	0.29	0.01	0.08
기타국가			해당국가=1	0.22	0.41	0.47	0.49
체류기간		연수	9.67	6.343	14.87	12.151	
배우자만남경로		결혼중개 업소=1	0.25	0.433	0.01	0.116	
한국어_말하기		1: 매우잘함 ~ 5: 전혀못함	2.29	1.028	2.15	1.268	
한국어_듣기			2.18	0.982	2.06	1.187	
한국어_읽기			2.34	1.063	2.26	1.288	
한국어_쓰기			2.60	1.139	2.52	1.386	

#### IV. 실증분석 결과

본 실증분석은 차별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 경험 이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이민관련 변수들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별로 구분한 후<sup>8)</sup>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각 분석별로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2〉) 차별경험이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경험이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핵심인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과정이 개인과 가족, 집단으로 하여금 상당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윤혜미, 2009) 이들이 느끼는 차별과 스트레스는 가족 안에서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통제력 상실, 무력감, 자신감의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경험(Paukert, Petit, Perez and Walker, 2006), 역할갈등의 경험(Chrispin, 1998),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장벽과 성격유형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Padilla, Wagatsuma, and Lindholm, 1985), 그리고 익숙하지 못한 행동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학적 변수인 연령은 낮을수록 세 개의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녀와의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거주지역이 읍면부일수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연령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노년기에 진입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U자 곡선을 그리거나(김의철 외, 2000),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는 하향곡선의 형태를 나타낸다(주경희, 2011; 정순돌 외, 2012)는 일반적인

8) 여성결혼이민자와 남성결혼이민자의 상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전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결과와 여성결혼이민자와 결과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결혼행복감이 연령이 낮은 경우에 더 높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김연수, 2007). 즉, 결혼이민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한(Cramer, Torgersen, and Kringlen, 2004)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sey and Redston(2006)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자는 이주 후 자신의 인적자원이 평가절하 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희 외(2008)에서는 한국의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해당 결과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따라서도 결혼이민자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실질적 소득(absolute income)액수보다는 상대적인 소득(relative income)이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McBride, 2001)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 빈곤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경제적 목적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든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와는 무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도 일반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중요한 관심사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는 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설동훈, 2009). 여성결혼이민자는 일하는 경우 판매종사자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자가 세 가지 만족도

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관련 변수로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를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대만·홍콩, 베트남, 필리핀, 기타국가)으로 분류하였는데, 중국결혼이민자는 기타 국가에 비해 세 가지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한국계)결혼이민자, 일본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 결혼이민자는 중국(한국계)결혼이민자 및 일본결혼이민자와 다르게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여성이민자의 경우 결혼동기가 자국 가족의 경제 지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혼동기가 배우자와의 관계 등 높은 결혼생활적응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에 대한 정의와 관점은 출신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출신국에 따라 행복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모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결과인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기간이 곧 거주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혼기간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김한성, 2013).

또한 배우자와의 만남경로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경우가 아닌 경우 모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 결혼 중개업자와 각 나라 브로커들의 위계화된 하청 구조에 의해 여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국제결혼중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대량·속성의 결혼중개시스템은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하며, 결혼 후에도 언어소통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상당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법무부 외, 2006).

한국어 능력은 듣기가 잘 될수록 세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말하기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민국의 언어 구사능력은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김진희 외, 2008) 분석결과 이민자의 의사소통효율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당결과는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삶의 만족도 및 자녀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만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수인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모든 만족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거주지역이 한국생활의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교육수준 또한 여성의 경우와 달리 만족도와 무관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가구소득은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와는 무관하였다. 자녀수 또한 만족도와 무관하였는데, 이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여성결혼이민자가 중요한 관심사로 설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결혼이민자가 일하는 경우는 판매종사자에 비해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기능종사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관련 변수로 중국(한국계)결혼이민자가 기타국가에 비해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한국계)결혼이민자와 일본 결혼이민자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기타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다르게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만족도와 무관하였으며, 배우자와의 만남경로 또한 만족도와 무관하였다. 앞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남성결혼이민자 2,538명 중 1.4%만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배우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스스로 배우자를 찾은 경우가 48.8%, 친구동료소개 30.9%, 가족친척소개 15.2%, 종교기관을 통해서가 3.5%, 기타가 0.2%로 나타나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스스로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2016.12)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는 크게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취업이민과 배우자를 찾아 들어오는 결혼이민이 다수인데, 최근 결혼이민이 줄어들며 상대적으로 남성 노동인구의 비중이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이민자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하여 결혼이민을 오는 비중보다 취업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말하기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인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사회적 차별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여성 결혼이민자

변수명		전반적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사회적 차별경험		-0.246 ***	0.026	-0.182 ***	0.027	-.0753 **	.021	
인구 학적 변수	연령	-0.007 **	0.002	-0.007 **	0.002	-.0110 ***	.002	
	거주지역	-0.062 *	0.027	-0.019	0.028	-.0836 ***	.022	
사회 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0.009	0.005	0.012 *	0.005	.0125 **	.004	
	ln가구순소득	0.133 ***	0.011	0.115 ***	0.011	.003	.009	
	자녀수	-0.039 *	0.019	-0.014	0.019	-.1020 ***	.015	
	직종 (ref. 판매직)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0.185 **	0.063	0.163 *	0.066	.0479	.0460
		서비스 종사자	-0.065	0.060	-0.066	0.063	.009	.0462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0.014	0.059	-0.047	0.062	-.0339	.0453
		단순노무 종사자	-0.022	0.056	-0.025	0.058	-.007	.0433
	이민 관련 변수	국가 더미 (ref. 기타 국가)	중국	-0.128 **	0.041	-0.117 **	0.042	-.102 **
중국 (한국계)			-0.162 **	0.053	-0.050	0.055	-.1305 **	.045
일본			-0.159 **	0.054	-0.052	0.056	-.257 ***	.045
대만, 홍콩			-0.057	0.117	0.114	0.122	-.090	.098
베트남			0.054	0.041	-0.047	0.043	.048	.0341
필리핀			0.103 *	0.046	0.107 *	0.048	.064 *	.038
체류기간		-0.009 *	0.003	-0.014 ***	0.003	-.005 *	.002	
배우자만남경로		-0.135 ***	0.034	-0.170 ***	0.035	-.058 **	.028	
한국어_말하기		-0.060 *	0.029	-0.022	0.030	.049 **	.0243	
한국어_듣기		-0.082 **	0.030	-0.068 *	0.031	-.073 **	.0252	
한국어_읽기		0.014	0.026	-0.002	0.027	-.051 *	.021	
한국어_쓰기		-0.024	0.021	-0.036	0.022	-.002	.0174	
상수		3.808 ***	0.138	3.963 ***	0.144	5.162 ***	.116	
Adj R-squared		0.095		0.074		0.065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3〉 사회적 차별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남성 결혼이민자

변수명		전만적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사회적 차별경험		-0.355 ***	0.055	-0.077	0.052	-0.039	0.048	
인구학적 변수	연령	-0.007	0.004	-0.017 ***	0.004	-0.014 ***	0.004	
	거주지역	-0.105	0.080	-0.094	0.075	-0.026	0.069	
사회경제적 변수	교육수준	0.013	0.013	0.001	0.012	-0.001	0.011	
	ln가구순소득	0.023	0.014	-0.005	0.013	0.002	0.012	
	자녀수	-0.011	0.041	-0.040	0.038	-0.060	0.035	
	직종 (ref. 판매직)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	0.349	0.387	-0.456	0.363	0.418	0.393
		서비스 종사자	0.063	0.390	-0.589	0.366	0.263	0.396
		기능원 및 기능종사자	0.090	0.383	-0.657	0.360	0.158	0.392
		단순노무 종사자	-0.224	0.387	-0.987 **	0.363	0.103	0.395
	이민 관련 변수	국가더미 (ref. 기타 국가)	중국	-0.151	0.106	-0.041	0.099	-0.128
중국 (한국계)			-0.234 *	0.095	0.106	0.089	-0.203 *	0.082
일본			-0.140	0.162	0.234	0.152	-0.379 **	0.136
대만, 홍콩			-0.246 *	0.124	-0.086	0.116	-0.162	0.108
베트남			-0.269	0.298	0.405	0.280	0.381	0.250
필리핀			-0.068	0.269	0.252	0.253	-0.570 *	0.226
체류기간		0.002	0.004	-0.001	0.004	-0.002	0.003	
배우자만남경로		0.097	0.283	-0.050	0.265	-0.200	0.249	
한국어_말하기		0.008	0.064	0.046	0.060	0.073	0.054	
한국어_듣기		0.000	0.069	-0.073	0.065	-0.158 **	0.058	
한국어_읽기		0.008	0.054	-0.006	0.051	0.052	0.046	
한국어_쓰기		-0.072	0.049	-0.034	0.046	-0.042	0.041	
상수		4.194 ***	0.459	5.862 ***	0.431	5.050 ***	0.451	
Adj R-squared		0.111		0.065		0.082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2015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는 이민자가 한국생활만족도가 낮을 것인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적이 상당히 다양하므로 성별, 국가별로 그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계층화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노동자 다음으로 한국 내 이민자 집단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자국민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차별은 향후 한국사회의 인종, 종족 계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기회가 제한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경험이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핵심인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과정이 개인과 가족, 집단으로 하여금 상당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세 개의 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배우자와 및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 가족도 일반 한국인 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중요한 관심사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는 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설동훈, 2009). 또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모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의 만남경로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경우가 아닌 경우 모든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 결혼 중개업자와 각 나라 브로커들의 위계화된 하청 구조에 의해 여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대량·속성의 결혼중개시스템은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하며, 결혼 후에도 언어소통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도 소외, 상당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법무부 외, 2006).) 한국어 능력은 듣기가 잘 될수록 세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말하기 능력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삶의 만족도 및 자녀와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한편 남성결혼이민자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차별경험이 있는 남성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 교육수준, 체류기간, 배우자와의 만남경로는 모두 만족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성별에 따라 분석결과와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이민자의 차별에 관한 연구들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만족도를 결정하는 고유한 요소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실증적 연구의 초석이 되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가구단위로 표본을 이중 추출하여 표집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가구 내 개인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이 생활만족과 같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 및 질적 연구, 부분적 통계분석의 결과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가별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국적 및 성별은 계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성별로 분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엄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관 외(2014). 한국의 이주동향 2014.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강혜정·이규용(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9권 제2호, 49-73.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5-34.
- 김민정(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서 본 한국살이의 어려움”. 한국인권재단 월례발표자료.
- 김석준 외(2015). “결혼이주자의 내용적 시민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1호, 391-426.
- 김유균·손인서·김승섭(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3호, 421-452.
- 김의철 외(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발달. 제5권 제1호, 119-145.
- 김정선(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제92권, 205-246.
- 김정선(2013). “귀환이주여성들의 ‘이주 안전망’ 만들기”. 한국여성학. 제29권 제4호, 191-235.
- 김진희·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8권 제1호, 127-160.
- 김한성·이유신(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177-209.
- 남인숙·안숙희(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99-108.
- 법무부 외(2006).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 자료.
- 이창식(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제4호, 717-742.
- 이태정(2005).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국경 없는 마을’ 사례”. 사회연구. 제10권, 139-178.

- 연합뉴스(2014.10.6).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에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에서 2017. 7.20.인출.
- 정해숙 외(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조인주·현안나(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1호, 177-206.
- 조선주·민현주(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중국, 중국  
(한국계),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 차종천(2004). “차별의 개념 및 실태와 원인”.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  
지학. 제59권 제4호, 35-61.
- 최혜지 외(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 하상복(2012). “황색 피부, 백색 가면”. 인문과학연구. 제33권. 525-556.
- 행정자치부(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서울: 행정자치부.
- Adamuti-Trache, M. and R. Sweet(200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Credentials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32(2), 177-201.
- Bobo, Lawrence D., and Cybelle Fox. (2003). Race, Racism, and  
Discrimination: Bridging Problems, Methods, and Theory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  
319-332.
- Benner, A. D., & Kim, S. Y. (2009). Intergenerational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in Chinese American families: Influences of  
socialization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4).  
862-877.
- Cramer, V., Torgersen, S., & Kringlen, E.(2004). Quality of Life in a  
City: The Effect of Population Dens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9(1), 103-116.

- Chrispin, M. C.(1998). Resilient adaptation of church-affiliated young Haitian immigrants : A search for protective resour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Chiswick, B. R., and Miller, P. W. (2007). The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iscussion Paper No. 2670). Bonn, Germany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Retrieved from <http://ftp.iza.org/dp2670.pdf>
- Collins, P. H. (1990). Black feminist thought :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Boston : Unwin Hyman.
- Diener, Ed, and Richard E. Lucas.(2000). Explaining Differences in Societal Levels of Happiness : Relative Standards, Need Fulfillment, Culture, and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41-78.
- Gee, G. C., Ryan, A., Laflamme, D. J., & Holt, J. (2006). Self-reported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African descendants, Mexican Americans, and other Latinos in the New Hampshire REACH 2010 Initiative : the added dimension of immigration. *Am J Public Health*, 96(10), 1821-1828.
- Hahm, H. C., Ozonoff, A., Gaumond, J., & Sue, S. (2010).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outcomes : A gender comparison among Asian-Americans nationwide. *Women's Health Issues*, 20(5), 350-358.
- Harrell, S. P. (200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racism related stress: Implications for the well-bing of people of col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 42-57.
- Kanas, A., and van Tubergen, F. (2009). The Impact of Origin and Host Country Schooling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mmigrants, *Social Forces* 88(2), 893-916.
- Kim, J. K. (2014). Yellow over Black : History of Race in Korea and the New Study of Race and Empire. *Critical Sociology*.

- Kim, M. (2013). Citizenship Projects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 Intersecting Motherhood with Ethnicity and Class. *Social Politics :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0(4), 455-481.
- Kim, M. (2013). Citizenship Projects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Intersecting Motherhood with Ethnicity and Clas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0(4), 455-481.
- Kim, S. (2012). Racism in the global era : Analysis of Korean media discourse around migrants, 1990-2009. *Discourse & Society*, 23(6), 657-678.
- Koivumaa-Honkanen, Heli, Risto Honkanen, Heimo Viinamäki, Kauko Heikkilä, Jaakko Kaprio, and Markku Koskenvuo.(2000). Self-Reported Life Satisfaction and 20-year Mortality in Healthy Finnish Adul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2(10), 983-991.
- Krieger, N. (1999). Embodying inequality :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 J Health Serv*, 29(2), 295-352.
- Krieger, N. (2014). Discrimination and health inequ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4(4), 643-710.
- Lee, S., Kim, D. S. (2014).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453-483.
- Levy, Alan B., Roger A. Bell, and Elizabeth Lin.(1980). Life Satisfaction - Aspirations and Alcohol Use : A Preliminary Repor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 441-452.
- McBride, M.(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5(3), 251-278.
- Massey, Douglas S. and Ilana Redstone Akresh. (2006). Immigrant

- Intentions and Mobility in a Global Economy :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Recently Arrived U.S.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954-971.
- Padilla, A. M., Y. Wagatsuma, and K. Lindholm.(1985). Acculturation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stress in Japanese and Japanese -America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 295-305.
- Paukert, A. L., J. W. Pettit, M. Perez, and R. L. Walker.(2006). Affective and attributional feature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ethnic minority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0(5), 405-419.
- Richardson, Alan.(1967). A Theory and a Method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Assimil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3-30.
- Safi, Mirna.(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159-176.
- Seol, D. H., & Seo, J. (2014). Dynamics of Ethnic Nationalism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 Journal*, 54(2), 5-33.
- Shields, M. A., and Wheatley-Price, S.(2002). The English Language Fluency and Occupational Success of Ethnic Minority Immigrant Men Living in English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1), 137~160.
- Thomas, Melvin E., and Bernadette J. Holmes.(1992).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for Blacks and Whit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3, 459-472.
- Valois, Robert F., Keith J. Zullig, E. Scott Huebner, and J. Wanzer Drane.(2004).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81-105.
- Veenhoven, Ruut, and Joop Ehrhardt.(1995). Test of Predictions Implied in Three Theories of Happiness : The Cross-National Pattern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33-68.



- Weber, M. (2008). Open and Closed Relationships. In D. B. Grusky (Ed.),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3rd Edition ed., 128-132. Boulder, CO: Westview Press.
- Williams, D. R., & Mohammed, S. A. (2009). Discrimination and racial disparities in health: evidence and needed research.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2(1), 20-47.
- Zeng, Z., and Xie, Y. (2004). Asian-Americans' Earnings Disadvantage Reexamined: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5), 1075-1108.

## Abstract

#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s in Korea**

Sun-joo Cho\* · Hyun-kyung Oh\*\* · Hyunjoo Mi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individual-level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s in Korea. using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mainly explores whether experiences on discriminations against marriage-immigrant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and children as well as overall life satisfaction. Further, this study aims to clarifying th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between women and men as well as among their mother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experiences on discrimination significantly lower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the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and children among female marriage-immigrants. This study also present that the satisfaction is likely to increase as female marriage-immigrants are younger, they live in suburban areas, and they get higher educational achievements. As marriage-immigrants got married through personal contacts other than marriage business companies, and their proficiency of Korean language is advanc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and children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an others. Further, marriage-immigrants from China show lower level of satisfaction than immigrants from other countries. Finally, the results highlight that experiences on discrimination for male marriage-immigrants show significantly lower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 and children as well as overall life satisfaction while other factors have no impact on any satisfactions.

**Keywords :** marriage-immigrants, discrimination, life satisfaction in Korea, marriage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hildren,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

\* First Author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Second Author : Ph.D Candidate,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